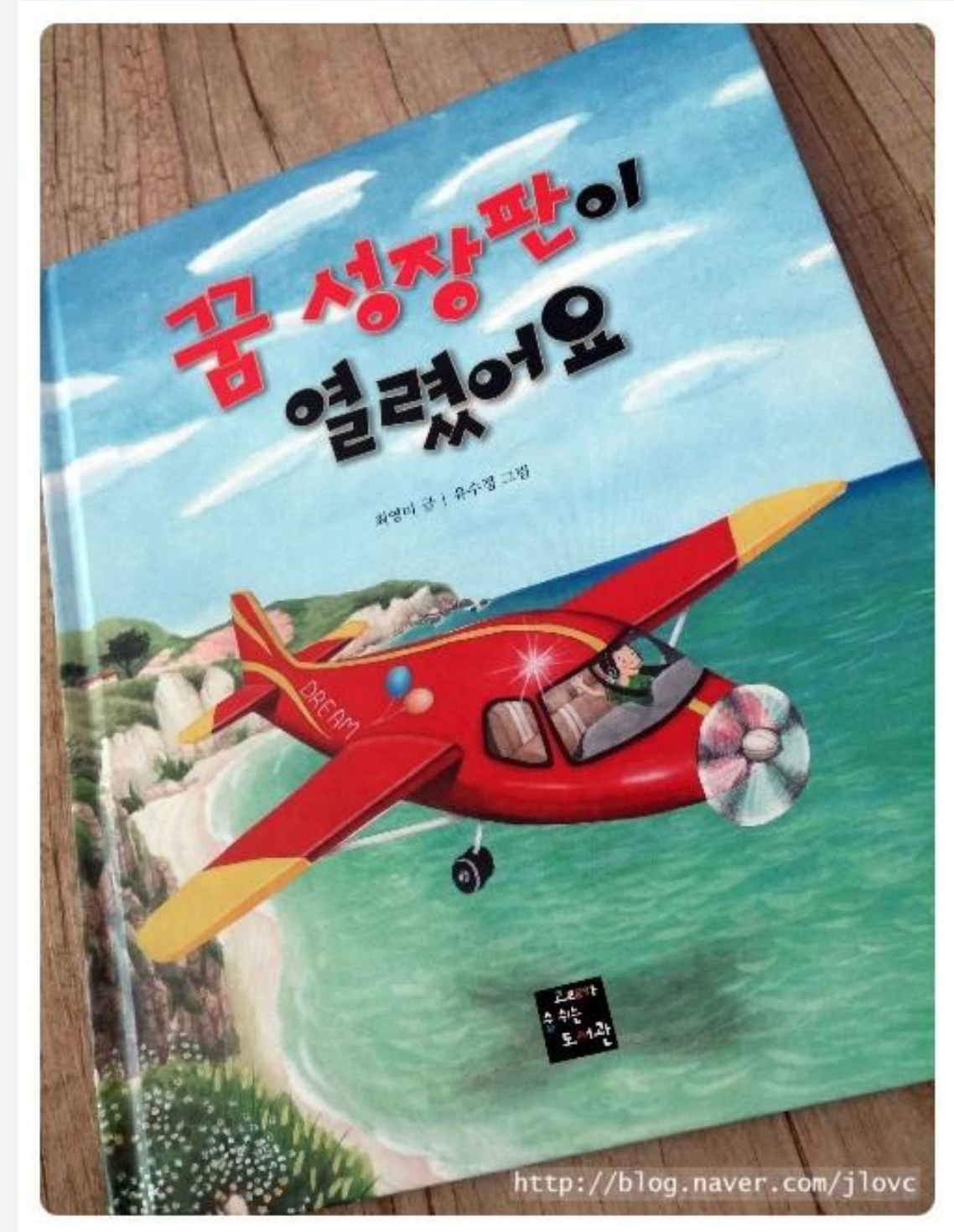


커뮤니티에서 성장하기

저도 크고 싶어요

성장판이 닫힌 어느 40대 아저씨의 갈망..



우리는 왜 성장에 목말라 있는가?



자아실현 욕구(Self-actualization)

- 자기를 계속 발전하게 하고자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
- 다른 욕구와 달리 욕구가 충족될수록 더욱 증대되는 경향
 - ✓ ‘성장 욕구’라고 하기도 함
- 알고 이해하려는 인지 욕구나 심미 욕구 등이 여기에 포함

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?

- 하드 스킬
- 소프트 스킬



하드 스킬 (Hard skill)

- 직무에 특정한 구체적인 스킬
- 특정 훈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스킬
- 수치화 가능한 특성이 있음
- 종류로 따지면 기술적 부분



소프트 스킬 (Soft Skill)

- 업무 접근 방식과 타인과 상호작용 (대인관계)
 - ✓ 팀워크, 커뮤니케이션 스킬
- 개인의 성격과 깊게 연관되어 가르치기가 어려움
- 가장 높은 소프트 스킬
 - ✓ 리더십, 커뮤니케이션
 - ✓ 전략적 사고 및 문제해결



이럴 때 필요한 것? 멘토?

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1:1로 지도와 조언을 하는 것

옛날에 비하면
많이 나아졌다



오해하지
말고 들어



인생 선배로서
말해주는 거야



기분 나빠하지
말고 들어



내가 다~~
해봐서 아는데



나 니까 이런 얘기
해주는 거야



커뮤니티 찾게 됩니다



커뮤니티에서 진짜 성장이 가능한가?

4장, 초연결 시대의 핵심 능력, 커뮤니티 리더십



시작은 이랬습니다

- 부산 소재의 전문대를 졸업한 노스펙
- 가진것도 없는
- 원래 꿈은 장사 (이유는 단 하나, 머니머니 해도 머니!)
 - ✓ 세일즈로 시작한 첫 사회 생활
 - ✓ 부산의 컴퓨터 상가에서 IT 제품 유통 시작
 - ✓ 매장 지키기, 물건 배달하기
 - ✓ 영업점 및 재고 관리 업무

그러다 어느날 문득 든 생각..

- 이 기록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?
- 장사를 잘하려면 데이터가 중요하겠는데?
-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?
-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부터 좀 배워볼까?



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

- 데이터 관련 직업은 무엇이 있지?
- 무식하면 용감하다!
- 전문대학 시절에 잠깐 배운걸로 무작정 들이댐
- 부산의 작은 게임회사에서 DBA로 시작



전직 퀘스트를 수락하다

이때만 해도..

“10년만 하고 다시 세일즈로 돌아가자!”

“그리고 상위 1% 목표를, 10년 안에 달성해보자!”

10. 1. 10

전직 퀘스트를 수행 중입니다

하지만 현실은 너무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어요...

- 사수는 도망가고..
- 월급은 계속 밀리고..
- 사장님 집 컴퓨터도 고쳐야하고..



전직 퀘스트를 중단 하시겠습니까?

중도 포기 할 뻔한 위기

- 실력은 늘지 않는것 같고..
- 잘 할 자신도 없고..
- 월급이라도 안정적이었으면..
- 용접을 배울까 진지하게 고민



서울에 있는 한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습니다

SQLTAG (그 당시 SQLER) – 대한민국 1타 DBA 모임

(이제는 이 그룹도 거의 친목으로 운영중..)



커뮤니티가 저의 새로운 인생 전환점이 됩니다

- 부산 <-> 서울 스터디를 오가다
- 눈물의 서울역 햄버거



부산 청년의 서울 상경

- 눈물의 햄버거 사건을 계기로 서울로 상경을 결정
- 운 좋게 서울의 한 게임회사에 취직
- 2008년 11월 24일, 서울 입성.
- (옥탑방 낭만? 그게 뭐죠?)
- 춥고 + 배고프고 + 물러설 때도 없음



갈망의 아궁이

내가 욕심 낼 수 있는 것은 “갈망” 뿐이었다.

- 갈망 : 간절히 바람
- 갈망은 무엇인가를 해내는 원동력이 됨
- DB를 잘하고 싶다 -> 밤새 공부하게 됨



삶 = 일(work) + 공부(study)

- 그 때부터 내 삶은 일과 스터디가 전부였다.
(친구도 없고, 친척도 없고... 오히려 잘뒀?)
- 스터디 한번도 빠진적 없음
-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
- “잘” 하지는 못했으니 “열심히”라도 하자
- 커뮤니티 매니저로 대표 운영자가 됨



커뮤니티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



공부는 하는데 왜 실력은 늘지 않는거죠?

- 시간만 소비했지, 효율적이지 못했다.
-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다.
- 기초 지식이 너무 없었다.
-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다.



부끄러운것? 부끄럽지 않은것?

- 질문도 어느정도 알아야 할 수 있다.
- 지금 모르는건 괜찮지만 나중에 모르는건 용서가 안된다.
- 어차피 욕먹을꺼 한살이라도 어릴때!
- 내가 모르는 것은 사실 남들도 모른다. (자존감 필수!)
-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.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.

커뮤니티 덕분에 빠르게 성장 (학습)

- 커뮤니티 선배분들의 찐! (매운맛)가르침
- 강제로 공부할 수 밖에 없는 환경 (스크럼 전략)
- 커뮤니티의 질문에 답글을 달면서 모르는 것을 알기
- 매일 공부한 것을 정리 (블로그)
- 실습 + 실습 + 실습..



커뮤니티 덕분에 빠르게 성장 (운영자)

- 운영자가 되어보니 ..
 - ✓ 학습 기획 및 스케줄 고민
 - ✓ 발표자 섭외 및 스케줄 확인
 - ✓ 세미나, 회식, 워크샵등 각종 활동 기획, 챙김
- 모든 정보가 나를 통해서 공유됨.
 - ✓ **도움 주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알게 됨.**



2012년 Microsoft MVP 가 되다.



- Microsoft Most Valuable Professional
- 또 다른 커뮤니티로 확장된 새로운 경험들
- 2012년 ~ 2022년 까지 10년 연속 어워드 수상
-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활동
- 시간이 지나면서 컨텐츠가 쌓이고 많은 사람들이
알아봐 주기 시작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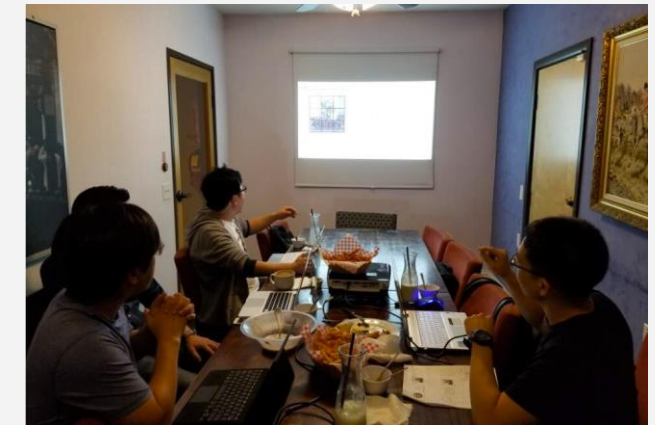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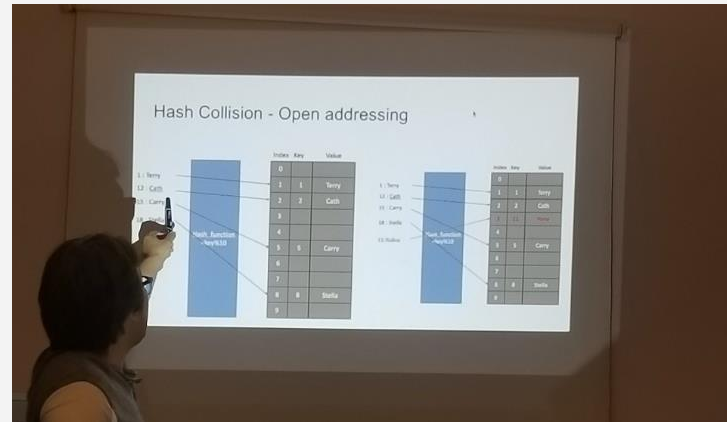
2016년, 생각지도 못한 미국 취업

- 항상 그렇듯 이민 1세대는 무조건 힘듭니다.
- 미국? 나도 처음이고 모르잖아요.

해외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힘

- LA에서도 커뮤니티를 만듦
 - ✓ K-DEVCON (구, SQL Angeles)
- 커뮤니티를 만든 이유는?
 - ✓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남!
- LA 최대 한인 IT 커뮤니티가 됨. (활동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했을 듯)

커뮤니티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즐김



2021년 10월, 갑자기 한국행을 결정

- 한국행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.
- 그냥, 정말 그냥 시작한 것이 또 다시 전환점이 됨.
- 많은 것이 변한 시간들, 특히 나!
- 새로운 시작 또한 커뮤니티 활동 덕분에 좋은 이력으로 남아 이직에 도움이 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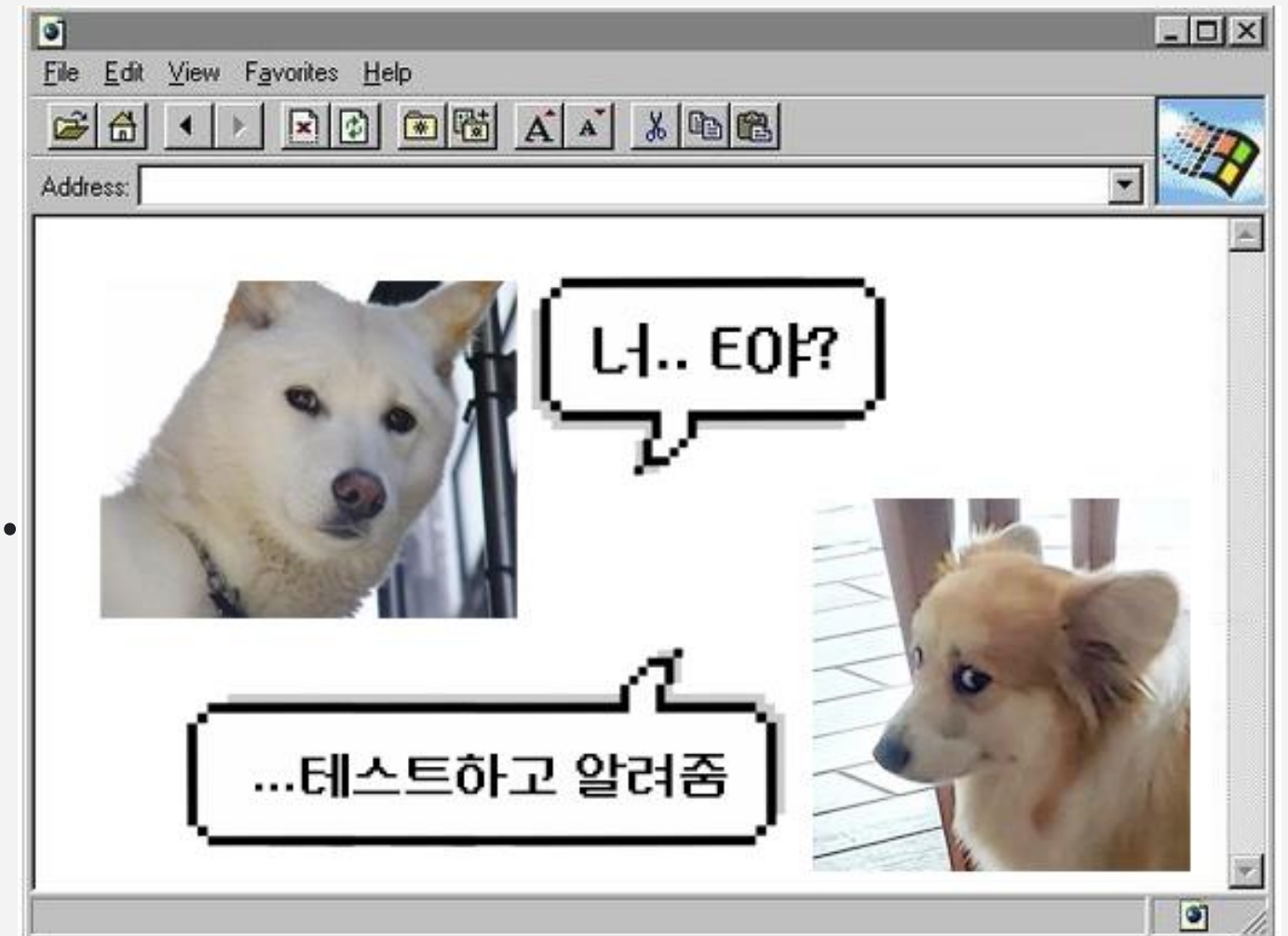
요약해보면..

- 커뮤니티 덕분에 지금의 “나”가 존재
- 커뮤니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
 - ✓ 기술에 대한 부채 해소 및 선배의 노하우 습득
 - ✓ 커뮤니티에서 역할을 수행 하면서 리더십 향상
 - ✓ 결국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됨
 - ✓ 사수가 없다구요? 회사에서 혼자라구요? 친목, 소속감 해결
 - ✓ 공동체 활동을 통한 협업 능력 향상



커뮤니티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?

- 기버(Giver)가 되세요.
-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말고 일단 시작하세요.
- 작은 모임도 괜찮습니다. 크게 키우시면 되요.
- 주변에 좋은 모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.
- (꼭 E일 필요는 없습니다.)
-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 하세요.



겉무새 보다는

- 생각을 많이 하지 말자.
- ✓ 고민은 결정만 늦출뿐!
- ✓ 미련 보다는 후회를 하자



펠리컨이 되자

· 그냥 하는 겁니다.



펠리컨적 사고
"일단 시도함"

그래도 모르겠다면?

